

농심 탐방노트

●
음식료
Analyst 김정욱
02. 6098-6689
6414@meritz.co.kr

Comment

2Q17 이후는 국내 라면시장의 가격할인 경쟁 완화 예상. 5/1일 삼양식품이 가격인상에 동참했 고이어서 팔도의 가격인상도 예상되는 상황. 전통 라면의 가격 할인 경쟁 보다는 볶음면류의 신제품 경쟁이 확대될 전망. 이에따라 가격 인상의 피해를 받았던 동사의 주력제품(신라면, 안 성탕면, 너구리 등등) 매출 회복 기대감도 발생. 판관비는 전년수준을 유지, 점유율 상승 시 축 소도 가능하다는 판단. 2Q~3Q 낮은 베이스 효과에 따른 이익 성장 흐름에 대한 전망 유지. 전 반적으로 5월 IR 내용은 긍정적

국내 라면

2Q~3Q는 기저효과 + 볼륨 회복 여지가 남아있음. 매출원가 개선되는 가운데 기존제품 수요 증가로 매출, 이익 개선하고 신제품 출시로 M/S 방어할 계획. 오투기 가격인상은 연말 예상

라면 수요는 연간 1% 이하로 줄어드는 추세. 짜장, 짬뽕만큼 임팩트 있는 소재가 없어 작년도 높은 베이스 부담되긴 하지만 일본시장에서 건면 비중이 20~30%인 점 참고해 건면 낼 계획

얼큰장칼국수 월 70억원까지 팔렸고 카레면 등 신제품으로 녹산공장 가동률 최대한 올릴 계획. 하반기에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신제품 출시 전망. 현재 프리미엄라면 월매출 짜왕 20~25억원, 맛짬뽕 7~8억원, 부대찌개나 얼큰장칼국수 10억원, 진짬뽕도 7~8억원 수준. 볶음너구리는 2~3 월 85억원 팔고 4월 20~30억원 수준

국내 스낵

허니트렌드 소멸로 기존 스낵 제품으로 매출 회복 중. 신제품이 많이 나오지 않는 시기라 P와 Q 모두 성장

해외 라면

1Q17 매출 감소했으나 이익은 유지함. 중국 1~2월 좋았으나 3월 사드 영향. 4~5월도 사드 영 향권이라 2분기 어려움. 미국은 매출액 하이싱글 성장(달러기준 두 자리수)으로 양호한 성과. 서부 메인스트림 SKU 확대하며 히스패닉 위주 공략. 동부도 채널 넓혀가며 두 자리수 성장 지속 전망

생수(백산수)

1Q17 10% 성장. 생수 수요 계속 10%씩 성장하는 반면 삼다수는 의회 및 환경단체 문제로 캐파 한정돼 동사가 시장 성장분을 가져오는 중. 중국 매출은 작년과 비슷한 100억원대 중반이 목표.

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. 당사는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6월 1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을 유가증권 (DR, CB, IPO, 시장조성 등)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2017년 6월 1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6월 1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: 김정욱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